주말기획 | 황금세대 '베이징 키즈'가 몰려온다

새로운 황금세대로 자리 잡을까. 2018년 KBO리그에 데뷔하는 신인들은 유난히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10년 전인 2008년 우리나이로 열 살이었다. 당시 베이징올림픽에서 야구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고 감동해 야구에 입문한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베이징 키즈(Kids) 세대'로 명명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올 시즌 신인 중 지난해 이정후처럼 KBO리그를 강타하는 루키가 또 나타날 수 있을까. 올 시즌 신인왕 경쟁을 펼칠 후보들을 살펴보고, 한국야구의 역대 '황금세대'를 되돌아본다. 아울러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9전승 금메달 신화를 쓴 '베이징 키즈'의 아버지 김경문 NC 감독의 소회도 들어봤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이 쿠바와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확정 지은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온 국민이 감동한 이 장면에 누군가는 배트를, 또 누군가는 공을 손에 쥐었다. 한국야구의 전성기를 보며 자라온 '베이징 키즈'가 이제 프로 데뷔를 눈앞에 뒀다. 스포츠동아DB

'무술년 슈퍼루키' 춘추전국시대…제2의 이정후는 누구냐

'베이징 키즈'의 2018년 신인왕 경쟁

강백호·안우진·곽빈·김영준·양창섭 등 베이징 金 보고 야구 꿈 키운 영건들 즐비
작년 이어 올해도 순수 신인왕 탄생 기대

지난해 신인왕 넥센 이정후(20)는 고졸신인으로 보기 힘든 맹활약을 펼쳤다. 1994년 LG 김재현이 작성한 역대 고졸신인 최다안타(134)를 넘어서더니, 같은 해 LG 서용빈이 기록한 역대 신인 최다안타(157)마저 23년 만에 갈아 치웠다. 그리고는 시즌 179안타로 마감했다. 여기에 111득점으로 1994년 유지현이 기록한 역대 신인 최다득점(109)을 넘어 신기록을 작성했다. 3할대 타율(0.324)은 물론 10대의 고졸신인이 144경기라는 장기 페넌트레이스에서 전경기 출장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 눈길을 모았다. '바람의 아들'로 불리며 천재 선수로 평가받던 아버지 이종범의 1993년 데뷔 첫해(126경기, 타율 0.280, 133안타, 85득점)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올렸다.

올해도 '제2의 이정후'를 꿈꾸는 슈퍼루키들이 많아 눈길을 모은다. 지난해와 올해 신인들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보면서 야구선수의 꿈을 키운 '베이징 키즈'로 한국야구의 미래로 평가되고 있다.

●'제2의 이정후' 꿈꾸는 슈퍼루키들

우선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선수는 kt 강백호다. 인기 농구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과 이름이 같아 화제를 모았지만, 그는 서울고 1학년 때부터 에이스와 4번타자를 맡아 투타에서 동시에 두각을 나타냈다. 1학년 때인 2015년 고척돔 개장 1호 홈런을 날리는 등 일찌감치 스타성도 발휘했다. 지난해 고교 무대에서 투수로도 12경기에 등판해 4승2패, 방어율 2.53을 올렸지만 타석에서 타율 0.434에 3홈런, 34타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2018년 신인드래프트 2차지명에서 kt는 1라운드 1순위로 강백호를 지명했다.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현 LA 에인절스)처럼 투타 모두 가능하지만, kt는 일단 외야수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kt에 1차지명으로 입단한 우완투수 김민도 기대주다. 연고지 수원 유신고 출신으로 키 186cm, 몸무게 88kg의 탄탄한 체격 속에 고교 시절 최고 구속 150km의 강속구를 구사하면서 유망주로 평가 받았다.

올해엔 김민 뿐만 아니라 1차지명을 받은 투수 중 한국야구의 미래로 평가 받는 특급들이 많다. 넥센이 1차지명한 안우진은 휘문고 시절 초고교급 투수로 각광 받았다. 최고구속 156km를 찍는 등 직구가 기본적으로 150km를 상회한다. 넥센은 안우진에게 구단 역사상 신인 최고 계약금인 6억원을 안겼다.



곽빈 강백호 안우진

두산이 고심 끝에 1차지명한 곽빈은 장래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타자로도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뒤늦게 투수로 전향해 시속 150km대 강속구를 뿌리면서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LG 1차지명 투수 김영준은 경기운영 능력이 빼어난 즉시전력감으로 꼽힌다. 지난해 고교 마운드에서 10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방어율 1.15를 기록했다.

삼성이 2차지명 1라운드에서 선택한 양창섭은 덕수정보고 시절 2년 연속 황금사자기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할 정도로 '게임돌이'라는 평가다. 고졸 신인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1차지명 투수 최채흥은 대졸 신인으로 자존심을 지킬지 주목된다. 대학 시절 통산 49경기에 등판해 23승 10패, 방어율 1.95를 기록하며 국가대표 간판투수로 활약했다.

●올해도 순수 신인왕이 나올까

과거엔 특급 신인이 프로 데뷔 첫해부터 팀의 중심선수로 자리 잡고 빼어난 활약을 펼치기도 했지만, 역사가 쌓이고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선수들의 기량이 몰라보게 향상된 요즘엔 신인이 입단 첫해부터 맹활약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수준차가 커 신인이 곧바로 주전으로 자리 잡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다. 2007년 두산 임태훈 이후 신인왕은 모두 프로 입단 몇 년이 지난 중고신인들이 차지했다. 그런 만큼 지난해 이정후는 10년 만에 나타난 순수 신인왕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올해는 신인 중 특급선수들이 많아 또 다시 순수 신인왕이 탄생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신인은 신인이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가장 잘하던 선수가 프로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친다는 보장은 없다.

여기에 중고 신인이 다시 신인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다. 지난해 1차지명 투수 롯데 윤성빈이 강력한 후보다. 지난해 어깨부상으로 1년을 쉬었지만, 롯데가 계획적으로 천천히 재활훈련을 시킨 측면이 있다. 부산고 시절 150km대 강속구를 던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표적이 됐지만 롯데가 4억5000만원을 투자해 영입했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92학번' 박찬호·임선동…'82년생' 이대호·추신수

한국야구 빛낸 황금세대는?

'87년생' 류현진·황재균 등 위대한 계보
한국야구 주축 선수들로 팬들 사랑 한몸

1998년 12월 16일 방콕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코리안 특급'으로 메이저리그를 주름잡던 박찬호는 이를 악물고 일구일구 혼신을 다했다. 상대는 숙적 일본. 박찬호가 7이닝 동안 27타자를 맞아 4안타 1홈런 2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역투한 덕에 한국은 13-1,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박찬호는 마지막 타자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낸 뒤 주먹을 불끈 쥔 채로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프로와 아마를 망라한 한국야구 최초의 '드림팀'은 박찬호의 맹활약(2승1세이브·방어율 1.32) 속에 6전승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1973년생인 박찬호는 동갑내기 임선동, 조성민과 함께 당시 '황금의 92학번'으로 불렸다. 한양대 재학 도중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입단한 박찬호, 고려대 졸업 후 일본프로야구 최고 명문 요미우리에 입단한 조성민, 연세대 졸업 후 일본프로야구 다이에(현 소프트뱅크)와 한국프로야구 LG 사이에서 국제스카우트분쟁을 일으킨 임선동은 모두 '제2의 선동열'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대형투수들이다. 결과적으로는 박찬호가 훨씬 더 큰 족적을 남겼지만, 대학시절까지는 임선동과 조성민이 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1973년생 동기들 중에는 쟁쟁한 친구들이 유독 많았다. 투수로는 손경수, 염종석, 정민철, 차명주를 빼놓을 수 없다. 김종국, 박재홍, 송지만, 홍원기 등의 타자들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KBO리그와 국제무대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다. 박재홍은 '리틀 쿠바'라는 애칭 속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메달에 기여하는 한편 KBO리그에선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7시즌 동안 1797경기에 출장해 통산 타율 0.284(1732안타)에 300홈런, 1081타점, 1012득점, 267도루를 기록했다.



박찬호

이대호

'황금의 92학번'과 더불어 한국야구의 황금세대를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세력은 1982년생들이다. 아직도 선수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이대호, 손승락(이상 롯데), 김태균, 정근우(이상 한화), 오승환(전 세인트루이스), 추신수(텍사스) 등이 대표주자들이다. 특히 김태균, 이대호, 정근우, 추신수는 2000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합작한 뒤 프로에서도 승승장구했다. 부산고 졸업 후 미국으로 직행한 추신수는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고초를 겪었지만, 시애틀~클리블랜드~신시내티~텍사스를 거치며 한국 타자들 중에선 가장 성공한 메이저리거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었다.

1987년생인 강정호(피츠버그), 류현진(LA 다저스), 황재균(kt)과 '빠른 88년생'으로 이들의 동기인 김현수(LG)는 92학번 세대와 1982년생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2008베이징올림픽 이후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주축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병헌(롯데), 양의지(두산), 차우찬(LG)도 1987년생으로 KBO리그에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베이징 키즈의 아버지' 김경문 감독

"한국야구 미래 밝아 참 기분 좋다" 환영

지난해부터 프로야구 현장에선 2018년 KBO리그에 데뷔하는 '베이징 키즈'가 큰 화제였다. 새로운 황금세대로 불리는 베이징 키즈의 아버지 김경문 감독(NC)은 시속 150km를 던지는 투수가 즐비한 고교야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박웃음을 지었다.

1999년생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키즈는 '92학번', '82년생', '90년생'에 이어 한국야구의 새로운 주축으로 성장할 큰 재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장 올해 강백호(kt), 안우진(넥센), 곽빈(두산) 등 대형 유망주가 KBO리그에 첫 발을 내딛는다.

베이징 키즈는 초등학교 때 김경문 감독이 이끈 야구대표팀의 2008베이징올림픽 전승 우승 신화를 보며 처음 유니폼을 입은 세대다. 아홉 살, 열 살 때 온 나라가 환호한 야구 금메달을 보며 프로선수를 꿈꿨다.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이 이어지며 리틀야구 창단 붐이 일기도 했다. 한동안 메말랐던 유망주가 올해부터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다.

김 감독은 올해 입단하는 신인들뿐 아니라 중고교에 쑥쑥 커가는 유망주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이중 한명이다. 바쁜 시즌 중에도 TV에서 고교경기를 중계하면 꼭 챙겨보기도 했던 김 감독은 "학생 선수들이 우리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체력들이 좋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보인다. 한국야구의 미래가 밝아서 참 기분이 좋다"고 반가워했다. 김 감독은 '베이징 키즈의 아버지'라는 새 별명에 스스로 "너무나 과분하다"고 겸손해 하지만 10년 전의 뜨거운 승부는 한국 야구에 큰 열매를 선물했다.



김경문 감독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은 프로야구 제9·10구단의 창단, 광주와 대구, 그리고 창원의 신축구장 건설이라는 한국야구의 새로운 중흥의 출발점이었다. 또한 전국에 사회인 야구 붐을 일으켰다. 게다가 프로야구의 씨앗인 많은 학생선수들을 야구장으로 불러들였다. 김경문 감독을 새로운 황금세대와 함께 기억해야할 분명한 이유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